

姜 “잘못된 칼날 디밀지 말라” 한전공대 감사 비판

기정

감사원, 설립 적법성 등 감사 착수 “인재양성소에 폭탄 던지는 일” 신정훈 “지난 정부 흡집내기 감사” 道 “소명절차 거쳐… 특혜 아냐”

감사원이 한전공대 감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지자체와 지역 정계가 ‘표적감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8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의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지우기를 넘어선 대한민국 인재양성소에 폭탄을 던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공대는 광주·전남의 인재를 키우는 것을 넘는 에너지 강국으로 가는 꼭 필요한 대한민국 기술혁신 고급인재를

키우는 일”이라며 “감사원은 부디 ‘잘못된 칼날을 드밀지말라’고 밝혔다.

또 “평균 60대 1이라는 경쟁으로 선발된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온지 이제 2년차로, 이 학생들이 땀 흘려 익히고 있는 에너지AI(인공지능)·신소재·환경기후기술·차세대그리드·수소에너지라는 필수 미래 기술을 우리는 어떻게 더 키울 것인가 생각할 시점 아닌가”라며 “에너지 빈국으로 갈 것인가. 미국의 MIT·칼텍을 언제까지 부러워만 할 것인가. 좋은 새싹을 잘라버리면서 어떻게 나라의 기둥을 키운다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도 “지난 정부 흡집내기 감사”라며 “이번 감사는 우리 지역과 특정지역에 국한돼 있는 국책사업이자, 지난 정부 주요 사업들에 대한 부당한 정치 감사라고 생각한다. 미래 사업의 중

요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 한전 공대 특별법 합의하에 추진된 특별법이고 법령에 근거해서 설립하게 된 대학을 행정부가 인위적인 당의 판단 기준으로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며 “민주당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앞으로 민주당이 풀어가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당 입장을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의 공익감사 청구를 인용, 31일까지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대상은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전남도, 나주시 등 5곳이다.

이번 감사는 한전공대 설립 부지로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이 선정된데 대한 적법성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부영주택에 대한 조건부 특혜 제공 의혹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혜 제공설은 일부 시민단체가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잔여지에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사전에 약속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다.

감사원은 또 전남도와 나주시를 대상으로 부영주택이 녹지인 부영골프장 잔여지를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후 얻게 될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 방안을 사전에 검토했는지도 살펴본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야당에서 주도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됐다. 대학 유치를 놓고 광주시 북구와 나주시가 경쟁을 벌인 결과 2019년 1월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으로 입지가 확정됐다. 2020년 4월 학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2021년 6월 착공해 지난해 3월 개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감사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수집을 실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감사 대상 전 사전감사에서 감사원이 한전에 상주하면서 여러 현안을 사전에 질의했고 그에 성실히 소명절차 거쳤다”며 “특히 부영CC 특혜 의혹이 이번 감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러차례 입장을 표명한 만큼,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상지·최황지 기자



신세계백화점에 광주비엔날레 홍보관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이숙경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광주지역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8일 광주 신세계백화점 본관 1층 컬처스퀘어에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홍보관 개관식을 갖고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관련기사 15면 나건호 기자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 확정

행안부, 대국민 공모 결과 발표

국가 법정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이 9월4일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향사랑의 날’ 대국민 공모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1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개정하면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지난달 9~20일 국민들로부터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날짜와 의미를 1차로 제안 받은 후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개 후보를 선정하고 최종 국민 투표를 거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9월4일로 확정했다.

1차 국민제안에는 총 2254명이 참여해 301개의 날짜를 제안했다. 이 중 9월4일로 제안한 인원은 145명이다.

9월4일로 제안한 이유로는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적합하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기부 답례품이 풍성해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 맞다’ 등을 들었다.

전문가 심사에서 후보로 정한 날짜는 7

월4일, 7월7일, 9월1일, 9월4일, 10월19일이다.

국민 투표에는 총 9448명이 참여했다.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된 9월4일은 3996명(42.3%)이 투표했다. 뒤이어 10월19일 1985명(21.0%), 7월7일 1882명(19.9%)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5개 후보 날짜를 제안한 299명 중 20명을 뽑아 각 30만원의 상금을, 국민 투표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농협물 적립금을 각각 지급한다. 국민 투표 참여자 추첨은 당초 100명이었으나 국민의 높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2배로 늘었다. 당첨자는 오는 10일 행안부 사회관계장관서비스(SNS) 등을 통해 발표하며 개별 안내도 할 예정이다.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정부 주관 기념식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기금 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기념음악회 등을 열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한국 야구, 14년 만의...’

1면서 계속 그는 “전력이나 통계는 저희가 우위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지만 절대 강자와 싸운다는 생각으로 임하겠다”며 “호수에 진 적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좋고 팬들의 성원에 답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드러냈다.

숙명의 라이벌 한일전 각오도 비장하

다. 한국은 일본과의 상대 전적에서 19승 18패로 우위지만 최근 세 차례 맞대결에 선 패배를 안았다.

이 감독은 “한일전의 무게감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이고 저희들도 맡은 하지 않았지만 엄청 생각하고 있다”며 “첫 경기를 이기고 한일전에 편하게 들어가 투수들을 올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오타니 쇼헤이를 비롯해

다르빗슈 유, 요시다 마사타카, 라스 닷바 등 빅리거를 중심으로 사사키 로키, 야마모토 요시노부, 무라카미 무네타카 등 강력한 라인업을 갖췄다.

호주는 애런 화이트필드를 중심으로 한화 이글스 출신 워릭 서폴드 등 마이너리거를 대거 선발했고 중국은 KT 위즈 투수 주권, 체코는 전직 메이저리거 에릭 소가드가 나선다.

고퀄리티(4K)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 편집

드론타임 DRONE TIME

스포츠행사 / 축제 / 산업현장 / 호텔 / 펜션 학교 / 부동산관광 / 분양 / 지도도 선박특수촬영 / 생산시설 / 양식장 아파트 / 교회 웨딩 / 이벤트 / (웹) 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돈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모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삼가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될수록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될**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올라가게 되어 **성적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스교육원

주재기자 모집

당사는 지역언론을 선도할 진취적이고 창의적 이상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I모집지역 및 인원

지역	고흥, 담양, 보성
인원	각 1명

I제출서류

- 이력서(연락처 명기).....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기소개서..... 1부

I접수마감 및 접수처

- 접수마감 : 채용시 마감
- 접수처 : 우편 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사 경영본부

이메일 접수 - recruit@jnilbo.com
■ 기타 사항은 ☎(062)510-042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全南日報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당 재단법인은 2023. 3. 6. 재단 이사회에서 관련법률(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정관 제41조에 따라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의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단법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사후활용주체(여수광양항만공사)에게 승계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해산절차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게제 익일로부터 2개월 내에 민법 제99조에 따라 채권신고 및 이의를 제출하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채권액은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재단법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1(덕충동)
대표청산인 강용주